

최근의 석유교역동향

金 乾 治

(本誌 편집인)

최근 우리나라의 석유제품수출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

금년들어 지난 8월말까지 우리나라의 석유제품수출량은 총 2천6백2만배럴로 전년동기대비 16.7%가 감소되었고, 특히 석유제품수출의 주류를 이루어오던 임가공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1.8%나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석유임가공수출추이를 보면, 지난 82년 4백57만배럴에서 87년에는 3천40만배럴로 피크를 이루었으나, 그후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임가공수출물량의 감소는 국내 수요증가와 정부가 임가공수출용 원유의 도입계약조건을 강화한데 따른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정유사의 임가공수출원유의 국내잔류분배에 대한 특혜를 배제하기 위해 금년부터 임가공수출용 원유의 도입계약조건을 종전의 50% 이상 수출에서 7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또

한 수출분에 대해서만 90일의 기금징수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이같은 석유제품수출의 감퇴는 최근 세계의 전반적인 석유교역증가추세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지난해의 세계석유제품교역량은 총 6백98만B/D로 전년대비 16.6%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석유교역중 제품비중은 87년의 24.4%에서 88년에는 25.5%로 확대되었다.

세계석유교역은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증가세가 현저하다. 이것은 주로 이 지역의 석유수요증가에 기인되고 있다. 87년의 경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석유수요는 총 6백65만B/D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원유정제능력은 8백만B/D 정도로 평균가동율은 83% 수준이다. 이 지역이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은 상당히 높은 가동율이라고 할 수 있다.

석유제품 수출 추이

(단위 : 배럴)

	물 량				증 감 륜 (%)			
	임 가 공	직 수 출	LOCAL	計	임가공	직수출	LOCAL	計
1982	4,578,000	2,326,000	0	6,904,000				
1983	15,905,000	516,000	0	16,421,000	247.42	▲77.82	0.00	137.85
1984	21,520,000	2,533,000	0	24,053,000	35.30	390.89	0.00	46.48
1985	24,886,000	1,554,406	0	26,440,406	15.64	▲38.63	0.00	9.93
1986	25,448,903	1,661,604	151,613	27,262,120	2.26	6.90	0.00	3.11
1987	30,401,609	2,073,782	35,716	32,511,107	19.46	24.81	▲76.44	19.25
1988	27,856,597	3,353,431	37,015	31,247,043	▲8.37	61.71	3.64	▲3.89
1989 1~8월	21,766,824	4,241,314	13,659	26,021,797	▲21.86	26.48	▲63.10	▲16.72

<자료> 대한석유협회

특히 韓國, 台灣, 香港, 싱가포르등 NIES(신흥공업경 제군)는 높은 경제성장으로 석유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성장을 연평균 3%로 가정할 경우, 오는 95년까지 이 지역의 석유수 요는 2백50만B/D 이상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중 1백만B/D는 日本등 선진국, 나머지 1백50만B/D는 나머지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휘발유, 경유등 수송용연료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정제능력 추이

(단위 : 천B/D)

		1987	1988
韓	國	790	840
日	本	4,460	4,325
東 南 아 시 아		4,170	4,170
대 양 주		730	740
中 國		2,230	2,340
小 計		12,380	12,415
中 東		4,205	4,335
計		16,585	16,750

<자료> BP통계

최근 우리나라의 석유제품수출감소 추세와는 달리, 日本, 싱가포르등의 석유제품수출의 확대는 주목할만 하다.

日本석유회사들은 최근 通産省이 수출입규제를 완화 함에 따라 원유의 임가공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제너럴 石油는 中國의 주문을 받아 10월부터 원유의 위탁정제 를 시작했다. 中國化工수출입總公司가 국제석유시장에 서 매입하는 中東産 원유를 위탁정제하여 석유제품으 로 中國측에 인도한다. 제너럴石油측은 위탁정제로 일 정한 정제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유 공장가동율도 향상시켜 정제비를 절감시킬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中國측으로서는 아시아시장 에서 비싼 원유를 조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결국 양측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현재 아시아지역에서는 정제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NIES와 ASEAN(아시아국가연합)의 급속한 경제성장 으로 이 지역에서의 석유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

지역에서의 석유제품수요는 금년에 들어서만도 7~8% 늘 어난데 비해 정유공장 건설은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있다.

원유는 구해도 이를 정제할 곳이 없기 때문에 아시 아각국은 싱가포르와 美國에 원유정제를 위탁하고 있 다. 그러나 美國은 경기호황으로 정유공장가동율이 한 계수준인 90%선에 이르고 있어 위탁정제여력이 적다. 또 아시아지역의 주요 공급센터인 싱가포르도 中國, 韓 國, 말레이시아, 이란등의 위탁정제로 풀가동하고 있다. 게다가 정제수수료도 크게 상승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배럴당 1달러 이하이던 위탁정제비가 현재는 2달러까 지 올랐다.

현재 日本석유회사들의 평균가동율은 6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79년의 제2차 석유위기 이후 정유 사들의 시설합리화가 이루어진데다가 정부가 원유처리 량을 규제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北美와 EC에 이은 제3의 석 유시장으로 높은 경제성장과 석유수요의 확대로 그 전 망은 밝다. 결국 이 지역의 석유수요증가와 정제능력확 대의 갭이 日本의 석유수출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싱가포르도 최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석유수요증 가에 힘입어 석유교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87년의 경우 싱가포르의 석유교역은 22억2천만달러로 싱가포 르 총교역의 17.2%를 차지했다. 88년 상반기중에는 87 년보다 28% 증가한 4천7백만톤(1백90만B/D)의 석유 교역이 이루어졌다.

1백만B/D 규모의 정제시설을 갖춘 싱가포르는 휴 스텐, 로테르담에 이어 세계 3대 석유정제센터로 현재 60여개 이상의 석유 트레이딩회사가 활동하고 있다.

석유수출은 단순히 외형적 이익 뿐만 아니라, 가동율 제고, 매출액확대와 자금회전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석유교역의 확대추세는 산유국의 수출형태가 원유보 다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확대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아시아·태평 양지역의 높은 경제성장에 따른 석유수요증가는 이 지 역의 석유교역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정부는 석유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석유수출 입제도도 단계적으로 자율화시킬 계획이다. 이제 석유 산업의 국제화는 필연적인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응전 략은 앞으로 석유업계가 풀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다. ♣